

## 관광지 유형에 따른 관광지 속성 및 제약요인이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

김범진(Kim, Beom Jin)\* · 권태길(Kwon, Tae Gil)\*\* · 고호석(Ko, Ho Seok)\*\*\*

### 국문요약

본 연구는 관광지 유형에 따라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택함에 있어 관광지 선택요인과 제약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최근 3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규정하였고, 설문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요인분석 결과 관광지 속성은 편의성, 지역성, 매력성, 활동성, 접근 및 친절성 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광지 제약요인은 사회적, 심리적, 대인적, 개인능력, 내재적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중국은 관광지 속성 중 지역성과 매력성이 관광지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관 광지 제약 중 사회적제약이 관광지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는 관광 지 속성 중 매력성이 관광지 선택에 정(+)의 영향을, 관광지 제약 중 사회적제약이 관광지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관광지 속성 중 매력성이 관광지 선택에 정(+)의 영향을, 관광지 제약 중 내재적 제약이 관광지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태평양은 관광지 속성 중 매력성이 관광지 선택에 정(+)의 영향을, 관광지 제약 중 개인능력제약이 관광지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관광지 속성, 관광지 제약, 관광지 선택

## I. 서 론

관광지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의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서, 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 과정은 관광객의 개인적 특성과 관광지의 특성은 물론 사회, 문화, 경제 등 기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김소윤·엄서호·류시영, 2011). 관광객들이 관광목적지선택 의사결정에 다양한 영향요소가 될 수 있는 추구편의, 선호하는 관광활동, 개인의 특성 혹은 관광지 선택 관련 의사결정 고려요인과 제약요인에 따라

\* 주저자, 헬스조선 문화사업팀장(jin6025@daum.net)

\*\* 공동저자, 모두투어 영업본부팀장(cromtg@daum.net)

\*\*\* 교신저자,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kohos@kyungnam.ac.kr)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관광 마케팅 시 다양한 상황과 변수를 가장 먼저 고려해 그려야 한다(장양례·김혜영, 2011)

관광객은 탈일상적인 경험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거주지를 벗어나 일상적이지 않은 장소로의 이동을 원하며 따라서 공간이동은 관광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동에는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비용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광지가 거주지에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공간적 분리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증가하게 되며, 이는 관광의 이동 특성상 특정 관광지의 방문 수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양광호, 1999).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계획적 행동으로 여겨지며,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관여 의사결정으로 간주되고 있다(권미영, 2014). 더욱이 관광목적, 목적지 및 경유지, 숙박, 식사, 쇼핑, 교통, 시간, 비용 등의 많은 의사결정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지닌다.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관광목적지의 속성이라 할 수 있다(권미영·고호석·양진연, 2014). 관광목적지의 속성은 관광객이 목적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관광지의 속성 비교와 평가를 통하여 관광지를 선호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매력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박종찬, 2012).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관광지 속성요인과 관광객들의 관광지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억제요인으로서의 관광제약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편익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분석한다면 관광지 개발 정책 방향과 마케팅 전략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지 유형에 따라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택함에 있어 관광지 선택요인과 제약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광지속성 및 제약요인에 따른 관광선택행동과 관련된 학문에 학술적인 시사점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효율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관광지 속성

Fakeye & Crompton(1991)은 전반적인 인상으로부터 선택되어진 이미지에 근거하여 잠재

관광객들에 의해 선택된 상태가 관광지 속성이라고 정의하였고, 관광지 속성을 목적지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 아이디어, 인상의 총합으로 보았다(Gronroos, 1984; Gartner, 1993). 즉 관광지는 관광활동을 통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간이자 매력 물로(김홍렬·윤설민·이애리, 2006)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관광지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관광객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관광지를 선택하게 되며, 각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에서 관광객은 최종 목적지 결정에 있어서 대상관광지가 가지는 특성에 기인하여 최종목적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관광지 선택속성이다(이철진, 2007). 관광지 선택요인은 ‘개인이 대상목적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인상 등의 총합’으로 결정되고 관광 활동을 참여하는 동안에는 관광객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유인요인(full factor)이며, 만족과 행동의도 등 관광객의 전반적인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겠다. 관광지 선택요인에 대한 하위요인은 주로 물리적 환경, 서비스품질, 접근성으로 구분되어 지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환경적요인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매력적인 외형, 디자인 부대시설의 편의성, 관광지의 청결성, 관광지내에서의 안내정보의 편의성,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주차의 편리성등의 항목으로 구성, 평가되어 왔다(Heung & Cheng, 2000; 손상락·이성용, 2006; Tosun, Temizkan, Timothy & Fyall, 2007).

둘째 서비스품질요인은 상품의 다양성, 가격의 적절성, 상품의질, 친절한 서비스, 매장의 쾌적성, 금액 지불방법, 종업원 언어능력 등으로 구성, 평가되었다(Heung & Cheng, 2000; 손상락·이성용, 2006; Tosun et al., 2007).

셋째, 접근성 요인으로는 교통수단, 지역안내, 인접연계성, 이동의 편리함, 이정표, 안내판, 시설이용의 용이함, 안내정보의 편의성 등을 들 수 있다( Donovan, Rossiter, Marcoolyn & Nesdale, 1994; 손상락·이성용, 2006).

## 2. 관광지 제약

최근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제약요인에 대한 연구가 관광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관광에 접목되어 관광활동을 분석하는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김원인·김갑숙·김수경 2006; 박미숙·이영진·이훈 2009; 이상건·윤유식 2005; 장호찬·홍성권·이석호 2008; Mowen, Payne., & Scott, 2005).

관광지 제약은 관광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제약요인에 따라 관광활동참여를 방해하거나 중단 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서로 다른 형태로 관광활동 선택 및 참여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장양례·우종필, 2008). 즉 개인이 관광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관광활동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거나 참여를 중단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관광지 제약요인은 고정되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활동적으로 선호와 레저패턴과의 상호작용하면서 레저표현(Leisure expression)이 형성되고 변화한다(이인재 외, 2006). 즉 관광지 제약요인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Williams & Fidgeon(2000)는 비용, 시간교통수단, 친구와 동료의 부재를 중요변수로 추출하였다. Mowen, Payne., & Scott(2005)의 연구에서는 관광제약을 시간부족, 다른 활동으로 인한 바쁨, 가족부양, 정보부족, 건강교통, 너무 많은 사람, 비용 등을 꼽았으며 Albayrak, Caber., & Crawford(2007)도 시간, 비용 및 정보부족, 관광과 체제에 따른 고 비용, 가족부양 등을 중요변수로 추출하였다. Wilhelm Stanis, Schneider, Shnew, Chavez., & Vogel(2009)는 시간, 건강, 혼잡, 비용부족, 가족부양, 부족한 에너지 등을 꼽았다.

박미숙 외(2009)는 개인적제약, 대인적제약, 구조적제약으로 나누어 국내를 방문한 개별 외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으며 장호찬 외(2008)는 짧은 방학 시간, 업무량, 비용, 시간부족, 즐길시설 부족, 장소부족, 너무 많은 매력물, 나쁜 기후등을 중요변수로 측정하였다. 이상건 외(2005)의 연구에서는 시간적여유, 경제적여유, 사람이 많아서, 관광지정보, 자연환경, 교통불편, 야외활동장소, 숙박시설, 매력적관광지없음, 차량, 사회적 인식 등의 변수를 고찰하였다.

### 3. 관광지 선택

관광지 선택은 관광지를 구성하고 있는 매력속성에 대한 추구이자 관광객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개인의 선택행동이라 할 수 있다(한승엽 외, 1998; 엄서호, 1997). 관광지 선택행동이란 관광상품의 교환과정에 관여하는 관광자들의 구매와 소비에 관련된 행동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 개인 또는 집단의 관광자들이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보처리 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관광상품과 관광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며 이에 따른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일련의 행동과정이라 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사전에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목적지에 대하여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식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은 비체계적으로 구성된 것들이다(고호석, 2013). 이러한 정보에 의하여 관광객들은 목적지에 대한 이미지를 체계화시키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근 몇몇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에서 휴양목적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선택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변수, 사회·경제학적 변수, 정신심리학적 변수, 태도 변수, 관광형태 변수들의 영향이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관광지 선택행동은 관광지 선택 과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관광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 즉 관광지 선택을 하기 이전의 단계도 매우 중요하다.

엄서호(1997)는 목적지 선정에 관한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3단계의 연속적인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 중에서 고려되는 목적지들은 선택세트(choice sets)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관광여행 목적지 선정의 3단계 과정은 첫째, 상황변수에 구애 받지 않고 마음속에 선호하는 모든 목적지를 포함하는 잠재적인 대안집합(awareness set)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능동적, 외적 탐색을 통해 잠재적인 대안집합 가운데서 추려진 실질적 대안 목적(evoked set)을 놓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대상 목적지(single destination selected)를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많은 소비자행동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행동 모델이 개발되어 있다. 관광지 선택은 소비자 행동모델에 이론적 근거를 둔 소비자 행동의 한 유형임을 알 수 있으며, 고관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 목적지를 선택하게 되며, 목적지 선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회인구 통계적 요소와 기계적 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광지 선택행동은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관광객의 선택행동이란 개인이 관광관련 결정을 하게 되는 심리적·사회적 과정에서부터 관광행동을 위한 각종 준비물, 즉 상품구매의 실제적 과정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관광객 선택행동의 정의와 연구범위에 대하여 통일된 견해는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선택행동은 관광시장에서의 관광객의 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행동의 성격, 이유,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연구 분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인 '만족'과는 달리 구전은 '개인의 직·간접 경험을 통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내용의 정보를 소비자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 또는 과정'으로 정의된다(권해도, 1990). 따라서 추천의도는 긍정적 구전의 한 종류가 되며, '추천의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긍정적 경험을 근거로 구체적인 경험 상품/서비스를 타인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동우, 1998).

### III. 연구방법

#### 1. 연구가설

오익근·최재화(2000)는 국내 7대 광역시와 9개 도를 대상으로 총 16개의 홈페이지를 분

석하였으며, 그 결과 관광정보 구성을 분석하였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일 경우에 그 지역은 탐색자의 관광고려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연(2001)은 평일 휴무자의 여가활동과 여가장애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변인에 따라 여가활동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는 스포츠활동에 여자는 관람감상활동에 높은 경향을 보임으로써 관광활동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며, 관광활동유형에 따라 관광제약요인에 미치는 영향 중 정보 및 시설적 제약, 경제적제약은 여가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가족 및 사회적 제약, 개인적 제약, 경제적 제약, 시간적 제약, 정보 및 시설적 제약 간에는 서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재범(2000)은 장애인의 관광제약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관광, 여가활동에 '수치심', '건강문제', '동행인' 등 일반 관광객의 관광제약요인 외의 제약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관광지 속성과 제약요인이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관광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구성

본 연구에서 관광지 속성은 공기열(2003), 김형미 외(2006), 이운섭(2006), 박구원(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편의성, 지역성, 매력성, 활동성, 접근성 및 친절성 등의 5개 요인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관광지속성 18문항에 대하여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와 같이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편의성은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하는 구조물 및 시스템을 말한다. 지역성은 관광지의 문화유적 및 지방색 등 관광지 자체의 특성을 의미한다. 매력성은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동기나 관광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목적물인 자연경관과 볼거리,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접근 및 친절성은 관광지까지의 접근성과 지역주민의 친절성을 의미하며 이는 관광자가 관광지를 선택하는데 주요 요인이며 고객의 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광지 제약은 이상진·윤유식(2005), 김원인·김갑숙·김수경(2006), Albayrak, T., Caber., & Crawford, D.(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관광활동을 제한하는 방해요인을 뜻한다. 관광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이 관광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충분한 관광활동을 균등하게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일컬어 관광제약이라고 정의한다., 관광지 제약 23문항에 대하여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와 같이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관광지 선택은 고동우(1998), 손상락·이성용(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고객의 과거 경험과 새로운 경험에 의한 새로운 결과라고 정의하며, 관광지 선택 2문항에 대하여 “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와 같이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3. 표본 및 자료수집

연구의 대상은 <표 1>과 같이 최근 3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규정하였고, 표본단위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할당표본추출방법으로 조사자가 인천공항에서 총 350부를 배포, 이중 324부(92.6%)가 회수되었으나 이들 중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286부(81.7%)가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표 1〉 표본의 개요

연구대상	최근 3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만 19세 이상의 성인
표본의 크기	350
유효표본	286부 (81.7%)
조사 시기	20014년 4월 1일~4월 20일

## IV. 분석결과

###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이 된 해외여행경험이 있는 성인 286명을 대상으로 성별은 남성 132명(46.2%), 여성 154명(53.8%)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 150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78명(27.2%), 40대 29명(10.1%) 50대 29명 (10.1%)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는 미혼 147명(41.4%), 기혼 139명(48.6%)으로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졸업자 177명(61.9%)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졸업자 54명(18.9%), 대학원재학이상자 40명(14%), 고졸자 15명(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이 176명(61.5%)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전문직·공무원·교사 44명(15.3%), 서비스업 39명(13.6%), 학생·전업주부·무직 27명(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소득은 5000-7000만원이 61명(21.3%), 7000만원 이상 60명(19.1%), 3000-4000만원 51명(17.8%), 2000만원 이하 48명(16.8%), 2000-3000만원 36명(12.6%), 4000-5000만원30명(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횟수는 2-3회가 149명(52.1%)로 가장 많았고 1회 65명(22.7%), 4-5회 52명(18.2%), 6회 이상 20명(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지는 동남아가 106명(37.1%)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48명(16.8%), 일본 47(16.4%), 미주 35명(12.2%), 유럽 28명(9.8%), 남태평양 19명(6.6%), 기타 3명(1%)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반자 유형으로는 가족이 87명(30.4%)이 가장 많았으며 친구·연인 84명(29.4%), 배우자 48명(16.8%), 직장동료 37명(12.9%), 혼자 22명(7.7%), 기타(손님, 소속단체) 8명(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기간은 1-3일이 121명(42.3%)로 가장 높았으며 4-6일 109명(38.1%), 7일 이상이 56명(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형태는 여행사패키지 여행이 181명(63.3%), 개별여행 70명(24.5%), 허니문여행 21명(7.3%), 기타(크루즈, 포상휴가) 7명(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비용은 100-200만원이 82명(28.7%)으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72명(25.2%), 100만원 이하 56명(19.6%), 400만원 이상 40명(14%), 300-400만원 36명(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검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추출과정은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직각회전의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고유치(eigenvalue) 기준을 적용하여 1보다 큰 요인에 대하여 요인화하였고, 요인범주 내에서 속성들의 결합이 내적일관성을 갖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일관성 검정을 실시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제시하였다.

각 구성개념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변수인 관광지 속성과 관련된 2개의 항목과 관광지 제약과 관련된 2개의 항목이 요인적재치가 개념적으로 서로 관련성이 없는 측정항목들의 요인에 중복적으로 적재되어 본 연구는 이러한 항목을 제거하고 최종적인 요인분석 결과를 <표 2>, <표 3>,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관광지 속성 요인분석 결과, 다음 <표 2>와 같이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7개의 속성으로 묶여져 이에 대한 요인명을 '편의성', 요인 2는 4개의 속성들로 묶여 '지역성', 요인 3은 3개의 속성들로 묶여 '매력성', 요인 4는 2개의 속성들로 묶여 '활동성', 요인 5는 2개의 속성들로 묶여 요인명을 '활동성'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2〉 관광지 속성 요인분석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신뢰도계수( $\alpha$ )	고유값	분산설명력
Factor1. 편의성		.856	3.783	21.015
삶의 수준	.799			
청결성	.796			
안전성	.775			
도로정비	.745			
기후	.674			
먹거리	.487			
쇼핑	.479			
Factor2. 지역성		.711	2.407	13.370
문화유적	.716			
지명도 있는 관광지	.713			
유명관광지와의 연계	.691			
지방색	.615			
Factor3. 매력성		.841	1.909	10.608
자연경관	.841			
볼거리	.640			
숙박	.636			
Factor4. 활동성		.591	1.807	10.041
위락활동	.775			
야간활동	.762			
Factor5. 접근 및 친절성		.629	1.445	8.030
접근성	.879			
지역주민 친절성	.573			
KMO = .82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1857.570 p=.000				

관광지 제약 요인분석 결과, 다음 <표 3>과 같이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7개의 속성으로 묶여져 이에 대한 요인명을 ‘사회적 제약’, 요인 2는 5개의 속성들로 묶여 ‘심리적 제약’, 요인 3은 6개의 속성들로 묶여 ‘대인적 제약’, 요인 4는 2개의 속성들로 묶여 ‘개인능력 제약’, 요인 5는 3개의 속성들로 묶여 요인명을 ‘내재적 제약’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3〉 관광지 제약 요인분석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신뢰도계수( $\alpha$ )	고유값	분산설명력
Factor1. 사회적 제약				
관광지혼잡	.765	.923	4.996	21.723
음식	.761			
정시간이동	.728			
관광지시설	.714			
관광정보부족	.712			
장거리	.678			
교통불편	.672			
Factor2. 심리적 제약				
신앙생활지장	.796	.867	3.314	14.408
집밖에서의 숙박	.741			
사고발생	.672			
타인 만남의 부담감	.604			
외국어	.495			
Factor3. 대인적 제약				
동반자관심	.773	.864	3.085	13.415
동반자의 시간부족	.638			
동반자의 이해부족	.630			
동반자의 경제부족	.595			
미안함	.488			
동반자부재	.435			
Factor4. 개인능력제약				
본인시간부족	.765	.768	2.613	11.363
본인경제부족	.739			
Factor5. 내재적 제약				
흥미부족	.803	.832	2.272	9.878
체력부족	.731			
심적여유부족	.704			

KMO: .82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1857.570 p=.000

관광지 선택 요인분석 결과, 다음 <표 4>와 같이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2개의 속성으로 묶여져 이에 대한 요인명을 '관광지 선택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4〉 관광지 선택 요인분석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신뢰도계수( $\alpha$ )	고유값	분산설명력
Factor1. 관광지 선택행동				
만족	.942	.867	1.774	88.700
추천의도	.940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어 회전되지 않았음

KMO: .50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259.108 p=.000

### 3. 가설검증

관광지 유형에 따라 관광지 속성과 제약요인이 관광지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중국의 경우 관광지 선택 중 지역성의  $t$ 값이 -3.236, 유의수준이  $p < .05$ 인 .003으로 나타났다. 매력성의  $t$ 값이 3.038, 유의수준이  $p < .05$ 인 .004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지 제약 중 사회적 제약의  $t$ 값이 -2.357, 유의수준이  $p < .05$ 인 .024로 나타났다. 즉,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 관광지 선택의 하위요인 중 매력성이 관광지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성과 관광지 제약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제약이 관광지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은  $F$ 값은  $p < .05$ 에서 6.727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549$ 로 54.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모두 1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위 결과는 공차한계는 0.1이상, 분산팽창은 10이하로 나타내고 있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Durbin-Watson은 1.845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5〉 관광지 유형에 따른 관광지 속성 및 관광지 선택의 영향 검증

유형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beta$ )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VIF	요약
중국 (n=48)	관광지선택	편의성	.167	.167	1.214	.232	.509	1.965	$R^2 = .645$ $AdjR^2 = .549$ $F=6.727$ $p\text{-value}=.000$ $DW=1.845$
		지역성	-.434	-.391	-3.236	.003**	.656	1.524	
		매력성	.402	.357	3.038	.004**	.693	1.442	
		활동성	.230	.224	1.609	.116	.494	2.025	
		접근 및 친절성	.193	.212	1.562	.127	.520	1.924	
		사회적	-.408	-.501	-2.357	.024*	.212	4.711	
		심리적	.153	.194	1.242	.222	.393	2.546	
		대인적	.162	.245	.919	.364	.135	7.435	
		개인 능력	-.071	-.118	-.677	.503	.313	3.193	
동남아 (n=106)	관광지선택	내재적	-.100	-.132	-.930	.358	.475	2.103	$R^2 = .402$ $AdjR^2 = .399$ $F=6.325$ $p\text{-value}=.000$ $DW=1.664$
		편의성	.150	.187	1.828	.071	.610	1.640	
		지역성	.062	.059	.588	.558	.629	1.590	
		매력성	.196	.249	2.508	.014*	.647	1.547	
		활동성	-.040	-.059	-.526	.600	.505	1.982	
		접근 및 친절성	.107	.144	1.375	.172	.582	1.718	
		사회적	-.200	-.320	-2.355	.021*	.344	2.911	
		심리적	-.020	-.029	-.219	.827	.357	2.801	
		대인적	-.076	-.126	-1.069	.288	.459	2.178	
미주 (n=35)	관광지선택	개인 능력	.057	.109	1.123	.264	.670	1.492	$R^2 = .526$ $AdjR^2 = .339$ $F=2.664$ $p\text{-value}=.000$ $DW=2.664$
		내재적	-.041	-.067	-.558	.578	.435	2.301	
		편의성	.112	.133	.524	.605	.308	3.246	
		지역성	.232	.296	1.120	.274	.282	3.546	
		매력성	.248	.282	1.365	.185	.464	2.154	
		활동성	-.165	-.231	-1.039	.309	.399	2.506	
		접근 및 친절성	.012	.021	.099	.922	.429	2.329	
		사회적	.134	.200	.656	.518	.213	4.696	
		심리적	-.196	-.314	-1.357	.187	.368	2.721	
유럽 (n=28)	관광지선택	대인적	-.019	-.038	-.134	.895	.247	4.050	$R^2 = .662$ $AdjR^2 = .463$ $F=3.330$ $p\text{-value}=.000$ $DW=2.015$
		개인 능력	-.190	-.363	-1.763	.091	.465	2.150	
		내재적	.112	.177	.842	.408	.447	2.237	
		편의성	.261	.479	1.488	.155	.192	5.207	
		지역성	.189	.276	1.325	.203	.458	2.183	
		매력성	.394	.603	2.462	.025*	.331	3.018	
		활동성	-.135	-.285	-1.170	.258	.335	2.985	
		접근 및 친절성	-.107	-.266	-1.039	.313	.302	3.308	
		사회적	-.006	-.014	-.046	.964	.215	4.643	
		심리적	-.233	-.540	-1.840	.083	.231	4.328	
		대인적	.128	.344	.884	.389	.131	7.630	
		개인 능력	.038	.121	.424	.677	.244	4.092	
		내재적	.081	.216	.833	.416	.294	3.396	

유형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beta$ )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VIF	요약
일본 (n=47)	관광지선택	편의성	.297	.371	1.992	.054	.382	2.617	$R^2 = .524$ $AdjR^2 = .391$ $F=3.956$ $p\text{-value}=.000$ $DW=1.678$
		지역성	-.213	-.260	-1.773	.085	.614	1.628	
		매력성	.379	.430	2.893	.006**	.598	1.673	
		활동성	.164	.226	1.442	.158	.536	1.864	
		접근 및 친질성	-.054	-.062	-.368	.715	.470	2.126	
		사회적	-.027	-.037	-.174	.863	.297	3.369	
		심리적	.087	.121	.498	.622	.224	4.468	
		대인적	-.002	-.003	-.014	.989	.250	3.993	
		개인 능력	-.004	-.008	-.046	.963	.462	2.165	
남태평양 (n=19)	관광지선택	내재적	-.244	-.355	-2.323	.026*	.568	1.760	$R^2 = .867$ $AdjR^2 = .701$ $F=5.214$ $p\text{-value}=.000$ $DW=2.655$
		편의성	.237	.202	.880	.405	.314	3.185	
		지역성	-.359	-.299	-1.490	.175	.414	2.415	
		매력성	.531	.712	4.095	.003**	.549	1.820	
		활동성	-.427	-.414	-1.401	.199	.190	5.257	
		접근 및 친질성	-.066	-.094	-.542	.603	.554	1.805	
		사회적	-.247	-.375	-.818	.437	.079	12.661	
		심리적	.167	.261	.606	.561	.090	11.165	
		대인적	.202	.332	.746	.477	.084	11.907	
		개인 능력	-.526	-.688	-2.608	.031*	.239	4.187	
		내재적	.082	.118	.528	.612	.335	2.983	

\* $p < .05$ , \*\* $p < .01$ , \*\*\* $p < .000$

동남아의 경우 관광지 선택 중 매력성의 t값이 2.508, 유의수준이  $p < .05$ 인 .014로 나타났으며 관광지 제약 중 사회적제약의 t값이 -2.355, 유의수준이  $p < .05$ 인 .021로 나타났다. 즉 동남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 관광지 선택의 하위요인 중 매력성이 관광지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관광지 제약요인 중 사회적제약이 관광지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은 F값은  $p < .05$ 에서 6.32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339$ 로 33.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모두 1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위 결과는 공차한계는 0.1이상, 분산팽창은 10이하로 나타내고 있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Durbin-Watson는 1.664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관광지 속성 중 매력성의 t값이 2.462, 유의수준이  $p < .05$ 인 .025로 나타나 유럽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 관광지 속성의 하위요인 중 매력성이 관광지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은 F값은  $p < .05$ 에서 3.33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463$ 로 46.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모두 1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위 결과는 공차한계는 0.1이상, 분산팽창은 10이하로 나타내고 있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Durbin-Watson는 2.015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유럽과 마찬가지로 관광지 속성 중 매력성의  $t$ 값이 2.893, 유의수준이  $p < .05$ 인 .006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 관광지 속성의 하위요인 중 매력성이 관광지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은  $F$ 값은  $p < .05$ 에서 3.956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549$ 로 54.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모두 1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위 결과는 공차한계는 0.1이상, 분산팽창은 10이하로 나타내고 있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Durbin-Watson는 1.678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남태평양의 경우 관광지 속성 중 매력성의  $t$ 값이 4.095, 유의수준이  $p < .05$ 인 .003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지 제약 중 개인능력의  $t$ 값이 -2.608, 유의수준이  $p < .05$ 인 .031로 나타나 남태평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 관광지 속성의 하위요인 중 매력성이 관광지 선택에 정(+)의 영향을, 관광지 제약의 하위요인 중 개인능력이 관광지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은  $F$ 값은  $p < .05$ 에서 5.214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 .549$ 로 54.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모두 1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위 결과는 공차한계는 0.1이상, 분산팽창은 10이하로 나타내고 있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Durbin-Watson는 2.665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관광지 유형에 따라 관광객이 관광지 선택요인과 제약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학술적인 시사점과 효율적인 관광상품 개발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를 위해 설정한 변수들의 요인분석 결과 관광지 속성은 편의성, 지역성, 매력성, 활동성, 접근 및 친절성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광지 제약요인은 사회적, 심리적, 대인적, 개인능력, 내재적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가설검증결과 중국은 관광지 속성 중 지역성과 매력성이 관광지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관광지 제약 중 사회적제약이 관광지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는 관광지 속성 중 매력성이 관광지 선택에 정(+)의 영향을, 관광지 제약 중 사회적제약이 관광지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관광지 속성 중 매력성이 관광지 선택에 정(+)의 영향을, 관광지 제약 중 내재적 제약이 관광지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태평양은 관광지 속성 중 매력성이 관광지 선택에 정(+)의 영향을, 관광지 제약 중 개인능력제약이 관광지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요약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지의 선택 속성 중 매력성과 편의성이 관광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사회적제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더불어 현재 내국인의 해외관광이 주로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관광이 주를 이루는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여행상품개발 시 가격조건을 가장 많이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에게 관광 관심분야와 관광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관광상품을 선택하게 하면 이에 따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은 지역성과 매력성, 사회적 제약이 관광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성이 관광지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가장 대표적 상품이 문화 및 역사유적이며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가장 큰 목적이 종교 관광과 휴양 및 휴식의 목적이다. 따라서 중국의 관광활동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지역성이 관광지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동남아는 매력성과 사회적제약이 관광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경관 및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관광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남아는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지의 높은 혼잡도와 많은 관광객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광지 시설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하여 관광지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은 매력성과 내재적제약이 관광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에 대한 관심과 흥미정도에 따라 관광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관광지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추측해본다. 남태평양은 매력성과 개인능력이 관광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남태평양까지의 거리와 이에 따른 고비용, 긴 여행기간 소요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개인능력(본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족)이 관광지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연구의 시기가 4월에 한정되어 시기별 비교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는데, 향후에는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른 비교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 논문투고일	2014. 10. 13
■ 논문 최종심사일	2014. 10. 31
■ 논문게재확정일	2014. 11. 25

---



## 참고문헌

- 강수연(2001). 평일 휴무자의 여가활동과 여가장애의 관계: THEME PARK 근무자를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동우(1998). 선행 관광행동 연구의 비판적 고찰. 『관광연구』, 22(1), 207-229.
- 고호석(2013). 지역축제의 인지된 효과가 지역사회 애착도 및 협력의사에 미치는 영향. 『지역산업연구』, 36(1), 265-284.
- 공기열(2003). 방한 일본인 관광객의 개인가치에 따른 호텔숙성선택의 차이 연구. 『한국관광레저연구』, 14(3), 213-227.
- 권미영(2014).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호텔 한식당 이용고객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37(1), 101-123.
- 권미영·고호석·양진연(2014). 음식관광 태도와 음식관광객 활동이 전체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산업연구』, 37(2), 263-286.
- 권해도(1990). 소비자 만족에 대한 연구 ; 기대불일치 파라다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소윤·엄서호·류시영(2011). 관광목적지 선택과정의 대안집단 형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연구』, 26(1), 33-50.
- 김원인·김갑숙·김수경(2006). 대학생의 여가활동유형, 여가제약, 여가선호와의 관계. 『관광연구』, 20(3), 177-192.
- 김형미·문성중·송재일(2006).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지 매력속성에 대한 기대, 지각된 성과, 만족, 재방문의사의 영향관계;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20(3), 171-184.
- 김홍렬·윤설민·이애리(2006). 여가활동을 위한 관광지 선호도와 이미지 유사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 30(4), 193-201.
- 박구원(2007). 일본 관광통계에 의한 관광객 집객 및 유인요인에 대한 고찰. 『관광연구』, 21(1), 301-318.
- 박미숙·이영진·이훈(2009). 관광활동 유형별 관광제약요인 차이분석; 방한 개별여행 외국청소년을 대상으로. 『관광연구』, 21(2), 191-218.
- 박재범(2000). 장애인의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대구지역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찬(2012). 해양관광지 방문객의 개인가치에 따른 관광참여 제약요인. 『호텔관광연구』, 44, 17-30.
- 손상락·이성용(2006) 도시지역소비자의 쇼핑장소 선택특성에 관한 연구 마창진 광역 도시권을 사례로. 『국토연구』, 50, 59-76.

- 양광호(1999). 공간마찰력이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분석 : 관광자의 특성과 관광지 공간분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서호(1997). 관광지 이미지 측정에 관한 연구; 관광지 이미지와 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1(2), 53-65.
- 오익근·최재화(2000). 인터넷 관광정보 구성 분석-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3(2), 31-46.
- 이상건·윤유식(2005). 잠재관광객 여가제약 요인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4(2), 589-602.
- 이운섭(2006). 관광자의 가치, 라이프스타일, 동기가 관광지 선택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재·이훈(2006). 선행 여가행동과 관련된 제약연구의 비판적 고찰. 『관광학연구』, 30(4), 339-357.
- 이철진(2007). 리조트 관광자 심리, 선택속성과 관계지향성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양례·김혜영(2011). 개별 여행객들의(F.I.T) 관광지 선택속성, 관광제약, 선호관광활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연구』, 4, 331-350.
- 장양례·우종필(2008). 고령층 여행객의 여행동기, 여행제약, 여행상품 선호속성, 목적지 선호속성이 만족과 미래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호텔관광연구』, 10(2), 98-116.
- 장호찬·홍성권·이석호(2008). 관광제약요인에 의한 관광의도와 실제관광행동의 차이. 『관광연구』, 22(4), 207-222.
- 한승엽·박수완(1998). 관광동기와 관광지 매력속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7(2), 35-51.
- Albayrak, T., Caber., & Crawford, D.(2007). Leisure Constraints and the Pursuits of Adventure Activities in Turke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18(2), 243-254.
- Donovan, R. J., Rossiter, J. R., Marcolyn, G., & Nesdale, A.(1994). Store atmosphere and purchasing behavior. *Journal of Retailing*, 70(3), 283-294.
- Fakeye, P. C., & Crompton, J. R.(1991). Image differences between prospective, first-time, and repeat visitors to the lower Rio Grande valley. *Journal of Travel Research*, 30(2), 10-16.
- Gartner, W. C.(1993). Image Fomation Process. In M. Uysal & D.R. Fesenmaier(Eds.),. *Communication and Channel Systems in Tourism Marketing*. New York: Haworth Press.
- Gronroos, C.(1984). A service quality model and its marketing implica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18(4), 36-44.
- Heung, V. C., & Cheng, E.(2000). Assessing tourists' satisfaction with shopping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China.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4), 396-404.
- Mowen, A., Payne, L., & Scott, D.(2005). Change and Stability in Park Visitation Constraints Revisited. *Leisure Science*, 27, 191-204.

- Tosun, C., Temizkan, S. P., Timothy, D. J., & Fyall, A.(2007). Tourist Shopping Experiences and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9, 87-102.
- Wilhelm Stanis, S.A., Schneider, I.E., Shinew, K.J., Chavez, D. J., & Vogel, M.(2009). Physical Activity and the 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Differences in Important Site Attributes and Perceived Constraints. *Journal of Park & Recreation Administration*, 27(4), 73-91.
- Williams, P. & Fidgeon, P.R.(2000). Addressing Participation Constraints: A Case Study of Potential skiers. *Tourism Management*, 21, 379-393.

ABSTRACT

## Impacts of Destination Attribute and Constrains by Characteristics on Destination Choices

Kim, Beom Jin<sup>\*</sup> · Kwon, Tae Gil<sup>\*\*</sup> · Ko, Ho Seok<sup>\*\*\*</sup>

This study presumes that there would be a boosting factor in selecting tourism destination as well as constraints factor. The integrated model of including all these factors to show how a tourism destination can be considered by tourists is introduced and empirically tested.

The enquetes survey has been made through the adults, who has made at least one overseas trip during last 3 years,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otal 350 enquetes wz`ere distributed, and among 324 enquetes collected, 286 enquetes were actually used for this study.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the attribute factors of tourism destination was, first, identified by factor analysis, where the resulting factors were convenience, localization, attraction, activeness, accessibility and kindness, while the constraint factors were consist of social, psychological, personal relations, individual capability and immanent factors.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of influence in tourism spot selection from attributes and constraints of tourism spot, in China localization and attraction, among factors of attributes, gave positive influence, while social constraint among constraints gave negative influence. In SE Asia the attraction factor among attributes gave positive influence, while social constraint gave negative influence in selecting tourism spot.

| key word | Destination Attribute, Destination Constrains, Destination Choices

\* Health Chosun Team Leader(jin6025@daum.net)


\*\* Mode Tour Team Leader(cromtg@daum.net)

\*\*\* Professor, Dept. of Tourism, Kyungnam University(kohos@kyungnam.ac.kr)




## 저/자/소/개


### 1. 주저자

	김 범 진(Kim, Beom Jin) : jin6025@daum.net
	현재 (주)헬스조선 문화사업팀 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에서 관광경영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관심 및 연구분야는 여행사경영론, 여행 · 관광마케팅, 호텔 · 리조트개발 등이다.

### 2. 공동저자

	권 태 길(Kwon, Tae Gil) : cromtg@daum.net
	현재 모두투어 대리점영업본부 강남영업부문 파트장으로 재직 중이며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관광경영학과에서 관광경영학 전공으로 석사를 취득하였다.

### 3. 교신저자

	고 호 석(Ko, Ho Seok) : kohos@kyungnam.ac.kr
	현재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에서 관광경영학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관광이벤트, 지역축제, 관광마케팅 등이다. 그의 논문은 관광학연구, 관광연구, 호텔관광연구, 동북아관광연구, 관광레저연구, 호텔경영학연구 등에 게재되었다.